



장마 시작... 우산은 필수품
장마가 시작된 26일 오후 광주시 동구 호남동 광주세무서 앞 횡단보도를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바쁘게 건너고 있다. 장맛비는 27일부터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주말인 29일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광주지방기상청은 예보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북·미 3차 정상회담 무르익어 영변 핵 폐기되면 불가역 단계”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북미 양국 간 3차 정상회담에 관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3차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음을 공개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관련기사 4면>

문 대통령은 오는 28-29일 일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연합뉴스 및 세계 6대 뉴스통신사(AFP, AP, 교도, 로이터, 타스, 신화)와 합동으로 진행된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는 한편, 북미간 비핵화 협상과 관련, “영변 핵시설 전부가 검증 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미회담과 비핵화 과정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도 탄력을 받을 것이며, 국제사회도 유엔 안보리 제재의

부분적 또는 단계적 완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핵포기 의지에 대해 “핵 대신 경제발전을 선택해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게 김 위원장의 분명한 의지”라며 “나와 세 차례 회담에서 빠른 시기에 비핵화 과정을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의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에 달려 있다”며 “시기·장소·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나의 의지”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 간에도 다양한 경로로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비핵화 진전에 따라 북한의 장사정포와 남북 간 보유한 단거리 미사일 등 위협적 무기를 감축하는 근축 단계로 나아가 수 있다”고 밝혀, 조건부이긴 하지만 남북간 근축 협의의 의의 있음을 시사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용섭 시장 “노사 상생 산업평화도시 실현” 김영록 지사 “‘블루 이코노미’ 새 비전 제시”

광주·전남 시도지사 취임 1년 기자회견 ... 새 도약 다짐

성공적인 1년을 보낸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26일 취임 1년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도시철도 2호선 등 막힌 현안을 순조롭게 해결하고 광주를 인공지능, 수소경제, 빅데이터 산업 등 4차 산업혁명의 선도도시로 탈바꿈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혁신으로 다진 1년, 미래로 도약하는 3년’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김 지사는 경전선 전철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등 열악한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고,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해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사업의 새 장을 열었다. 전남의 여건과 발전 방향을 감안해 ‘블루 이코

노미(Blue Economy)’를 새로운 새전년 비전으로 제시했다. <관련기사 3면>

이 같은 성과가 시도민의 지지로 이어지면서 김 지사의 경우 시도지사 직무수행 지지도에서 지난 4월을 제외한 10개월 간 1위를 차지했다. 이 시장 역시 꾸준히 순위가 상승해 지난 4월 1위에 오르는 등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지지도에서 1·2위를 석권하는 등 전례 없이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다만 한전공대 부지선정 과정에서 경쟁 구도를 형성하며 소모전 양상을 보였고,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로 불편한 기운이 감돌고 있는 등 앞으로 광주·전남은 무조건적인 상생보다는 해당 지역의 발전을 전제로 한 선의의 경쟁 및 선별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 시장은 26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1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시정을 통해 6대 분야에서 거둔 100대 성과와 남은 3년간 추진할 10대 핵심정책의 방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1년은 휴일 없는 강행군이었지만 고향 광주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보람된 시간이었다”며 “오랜 시간 정치적 차별과 소외로 인해 경제적으로 낙후한 변방의 광주를 대한민국의 미래로 우뚝 세우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해 기본을 바로 세워 새로운 길을 내야 했다”고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취임과 함께 광주 비전과 시정목표, 시장가치 등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혁신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혁신과 소통으로 이룬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 3년은 ‘정리되고 풍요로운 광주시대’를 여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우선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역대 가장 성공한 대회로 개최할 것을 약속하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공시켜 명실상부한 노사 상생의 산업평화도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에너지·관광·의료·운송·엔터 도시 등 5개 분야와 전남의 풍부한 정색(블루) 자원과 연계한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를 전남의 새 비전으로 제시한다”고 밝혔

다. 김 지사는 “전남의 가장 큰 힘이자 미래 발전의 동력으로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경제력 혁신성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Blue Energy),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Blue Tour), 바이오 메디컬 허브(Blue Bio), 미래형 운송 기기 산업(Blue Transport), 은퇴 없는 스마트 블루시티(Blue City)를 블루이코노미의 5대 전략 프로젝트로 내놓았다. 한전공대를 중심으로 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를 속도감 있게 조성하고 전남을 국가 그린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구상과, 브랜드 사책 1호로 명명했던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을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로 변경했다.

그는 “전남의 풍부한 섬 해양 자원과 남해안권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기반으로, 영광·목포·순천·여수·부산까지 연결하는 광역 관광벨트를 구축하겠다”며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사업 등 블루 이코노미와 관련된 시책을 국가 계획에 반영시키겠다”고 말했다.

/최원일 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갈등 풀리나

지역민들 “시험가동 불가피 ... 민관거버넌스 회의결정 존중”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지역민들이 핵심 쟁점인 ‘발전소 시험가동’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27일 열리는 민관거버넌스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환경 유해성 평가를 위한 발전소 시험가동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에 따르면, 범대위는 전남 혁신도시 내 한국인터넷진흥원 강당에서 주민 9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시민보고회를 통해 향후 열리는 열병합발전소 민관 협력 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나주 지역민들은 이날 보고회에서 발전소 시험가동조차 거부할 채 논란을 계속 이어가기는 힘들다는 의견을 모으고 범대위에 관련 결정을 위임키로 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시험가동에 거부감을 가진 주민들도 있지만 무작정 시간만 끌고 갈 수는 없는 만큼 범대위와 거버넌스의 결

정에 주민들이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애초 거버넌스는 지난 3월 열병합발전소 시험가동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에는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시험가동을 2개월간 진행한 뒤 60일간 분가동을 실시키로 하는 등 잠정 합의까지 이뤄진 바 지역민 반발이 거세지면서 ‘없던 일’이 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역민들이 지난 9차 거버넌스 회의에서 제시됐던 ‘시험가동과 분가동을 합해 3개월간 진행하자’는 의견에 대한 합의 여부를 범대위에 위임해준 만큼 향후 회의에서 이같은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거버넌스 위원회는 27일 10차 회의를 열고 발전소 시험가동을 포함한 후속 절차 시행에 관한 최종 합의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주민수용성(주민투표+공론화) 조사 범위도 지난 9차 회의에서 ‘반경 5km 내 법정동 주민’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의견이 좁혀진 만큼 합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나주·순영철 기자 yacson@

사랑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대한민국 최초
‘블루 플래그’ 국제인증 획득

완도

안전하고 깨끗한,
해수욕장으로
오세요!

생일 금곡 해수욕장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금일 명사십리 해수욕장

해수욕장명	개장기간
신지 명사십리	7.08. ~ 8.25.
금일 명사십리	7.19. ~ 8.18.
신지 동고	7.19. ~ 8.18.
약산 가사	7.19. ~ 8.18.
청산 지리	7.19. ~ 8.18.
청산 신흥	7.19. ~ 8.18.
보길 예송	7.19. ~ 8.18.
보길 중리	7.19. ~ 8.18.
보길 통리	7.19. ~ 8.18.
생일 금곡	7.19. ~ 8.18.
소안 미라	7.19. ~ 8.18.